

IBKS Spot Comment

통신서비스/지주

김장원

02) 6915-5661

jwkim@ibks.com

[통신서비스]

미국 통신서비스 시장 재편

이동통신서비스 3위와 4위 합병 최대 걸림돌 해소

T모바일(3위)과 스프린트(4위)는 2014년, 2015년 두차례 합병 시도 무산
2018년 세번째 시도에서 미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 승인. 그러나 14개 주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만에 연방법원이 기각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CPUC) 승인을 거치면 금년 상반기 중 합병 성사

3강 체제로 재편되는 미국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버라이즌, AT&T, T모바일&스프린트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4%, 34%, 30%
스프린트는 부스트 모바일, 버진 모바일 등 자회사와 프리페이드 폰서비스 등 일부 사업을 디시 네트워크에 넘기며 디시 네트워크는 제 4이동통신사업가가 될 예정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계획 수반

합병 법인은 미국 인구의 97%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 구축
디시 네트워크는 사업 초기 T모바일 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체망 구축
합병 승인 조건에 5G 네트워크 구축율과 시기를 첨부

통신장비시장에 긍정적인 환경 조성

미국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한 한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서비스 상용화는 관련 통신장비의 검증에 의미하기에 국내 통신장비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판단되며, 미국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구축 경쟁으로 장비 수요가 많아지고, 투자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통신장비시장은 5개(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화웨이, ZTE) 정도의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거나, 납품을 경험한 장비업체를 중심으로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도 지난해 국내와 마찬가지로 5G 투자로 무선장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5G는 미국의 이런 변수가 아니더라도 올해부터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통신장비에 대한 관심을 권고한 바 있었는데, M&A로 비슷해진 통신서비스의 점유율은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서비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네트워크 질적 우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마케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통신장비업체에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